

야나기다니 관음(요코쿠지 절)

야나기다니 관음이라고도 불리는 요코쿠지 절은 나가오카교시의 니시야마 산중에 있는 니시야마 정토종 사원으로 '눈(眼)의 관음보살'이라고도 합니다. 본존(관세음보살)과 경내를 흐르는 물에는 신성한 힘이 있다고 하여 눈병 치유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경내에는 많은 불당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지붕 달린 복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대한 부지는 봄의 벚꽃과 여름의 수국,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단풍 등 사계절의 아름다움으로 알려져 있는 외에도 근년에는, 참배 전에 손과 입을 깨끗이 하는 조즈(손 등을 씻는 물)에 가득히 꽃을 띄운 예술적인 '하나조즈'를 만들어서 참배객이 늘고 있습니다.

기원

요코쿠지 절은 교토의 유명한 기요미즈데라 절의 창립자이기도 한 승려 엔친에 의해 806년에 창건되었습니다. 엔친은 관음보살을 만날 거라는 예지몽을 꾸고 교토 서쪽에 있는 니시야마 산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엔친은 버드나무가 무성한 골짜기의 바위 위에서 11개의 얼굴과 천 개의 손, 그리고 그 손 하나하나에 눈이 있는 관음보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관음보살에는 눈병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한 엔친은 그 땅에 관음보살을 모시는 불당을 건립하고 요코쿠지 절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눈을 치유하는 물의 전설

811년, 진언종의 개조인 구카이(774~835년)가 당시 주지를 맡고 있었던 근처의 오토쿠니데라 절에서 요코쿠지 절에 참배를 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구카이가 요코쿠지 절의 불당 근처의 연못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새끼 원숭이의 눈을 씻고 있는 어미 원숭이의 모습을 보고 17일간 기도를 올린 결과, 새끼 원숭이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구카이는 나아가 17일 동안 어린 원숭이를 위해 기도를 올리고, 독고저(独钴杵)라고 하는 법구를 사용해 눈병에 효과가 있는 신성한 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물은 '오코즈이(独钴水)'라고 불리며, 역사적인 인물들도 애용했습니다. 오코즈이는 지금도 눈병 치유를 바라는 사람들이 물을 떠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내

양쪽에 바람의 신인 후진과 천둥의 신인 라이진상이 서 있는 산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갑니다. 이 산문은 조쿠시몬 문이라고 하며, 옛날에는 궁정의 사자인 칙사만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17세기 초엽에 지어진 본당에는 본존인 십일면천수천안관음상이 안치되어 있는데, 매달 17일과 18일에만 일반에 공개합니다. 이 관음상은 교토부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원(書院)은 손님을 맞이하는 건물로 지붕 달린 복도로 본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원에서는 경전을 베끼는 '사경'과 불상의 모습을 베끼는 '사불(寫佛)'에 참가할 수 있으며, 사경과 사불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이 정화되고 공덕 쌓기로 이어집니다. 서원에 전시되는 작품은 계절과 공휴일에 맞추어 바뀝니다. 서원 옆에 있는 조도엔(靜土苑)은 에도 시대(1603~1867년) 중기에 조성된 정원으로 교토부에 의해 명승 정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도엔은 서원, 계단, 가미쇼인(上書院)에서 각각 다른 높이와 각도로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미쇼인은 매달 17일 오전과 봄·여름·가을의 특별 참배 기간에만 공개됩니다.

지붕이 달린 긴 계단을 올라가면 오쿠노인(奥之院)에 도착합니다. 오쿠노인에는 나카미카도 천황(1702~1737년)으로부터 하사받은 관음상과 28구의 수호신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경내에는 그 외에도 몇몇 작은 불당과 제단이 있습니다. 아이젠도(愛染堂)에는 인연 맺기와 화목한 부부 생활을 관장하는 애염명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요도도노벤텐도(淀殿弁天堂)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1536~1598년)의 측실인 요도도노(1569~1615년)의 커다란 인형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코쿠지 절산의 수호신인 간리키이나리를 모시는 두 곳의 신사가 있으며,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통찰력을 내려준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초즈

신사나 절에는 일반적으로 입구 부근에 참배 전에 손과 입을 깨끗이 하기 위한 데미즈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데미즈야의 수반을 계절별 꽃들로 꾸미는 예술적인 연출이 인기를 얻어 연중 재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SNS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나기다니 관음은 이 '하나초즈'라고 불리는 새로운 풍습의 선구자로서 매달 다른 꽃이 경내 다섯 군데의 수면을 장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본당 앞의 데미즈야입니다. 용의 입에서 물이 나오는 구조의 커다란 금속제 수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수면 가득히 꽃이 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쇼도인에 세 개의 원형 조즈바치(손을 씻기 위해 물을 담아놓는 그릇)가 있고, 사원 보고(寶庫) 가까이에도 또 하나의 작은 조즈바치가 있습니다. 계절별 꽃들로 밝고 선명하게 장식함으로써 역사 깊은 사원에 새로운 매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